

박창옥 선생

(12)

박창옥 선생은 1911년에 원동해안 연해주
 뽀보시베르 구역 크라브기노시에서 탄생하시었다.
 고향 도시에서 1935년에 사범전문학교를 나오시고
 원동으로 부처의 한인 강제이주로 인하여 까자흐
 공화국 코술흐타 시에서 1939년에 사범대학을 나오
 시었다. 대학을 나온후 (일연)고공에서 일년간 여문
 학교원으로 일하시고, 다음 1940-1942년 사이에
 는 코술흐타 주 최리구역 군량위원회 선전 서동부장
 으로 2년간 일하시었다.

1942년 8월에 소련군에 추모되어 모스크바 4차
 나노브 1명칭 경찰 학교에서 일년간 공부하시고 1943
 년에 경찰병으로 중국 만주에 파견되어 일본 광둥군
 동향을 경찰할 업무를 맡았다.

박창옥 선생은 소련 국경수비대 경찰병들의 호응에 의하여
 소련 국경은 용이하게 넘어갔으나 동북사방이 생소한 하
 향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어야 인간출어나 일나
 고 고에서 어떤 비밀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국경지
 대 삼림 울속에서 일본 반함정 경찰대가 어느쪽
 에서 나타날지 알로리가 없어 일일간 1킬로미터
 도 돌파할수 없었다. 그러던 도중 제3일에는 일본
 군에게 발견되어 후적당하게 시작 되었다.

삼림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적으로 인정
 되어 일본 반함정군이 되어 보았다. 그도 당시 일본 광둥군
 반함정부에서는 조선사람들을 증집하여 나무꾼이나 다
 른 어떤 농민으로 각장시켜 소련국경 국경 삼림속에 배

치하여 놓았으며, 또 산속에서 도대기 산전이나 가라봉
 사 정어먹고 사는 화전민 부분들을 배척하여 자기들의
 특별 필경으로, 권력군의 루트로 사용하여왔던 것이다. ^{그런}
 물에 ^대로는 화전민 집을 만나도 간단하게 들어 갈수 없
 었다. 박선생은 3일간이나 추격당하고 또 추격대원들
 은 ^대로는 전방 무복들 사적을 하는바탕에 원팔을복삼
 당하였다. 박선생은 불태견강체로써 절름 시절에 문동이
 나하던 몸으로 아주 빈혈하게 움직이었다. 그러나 3일간
 이란 긴시간을 추격당하여 반쯤 굶어 살아온 환경에서
 인제는 기진맥진하였다. 박선생은 인제는 더 앞으로 갈수 없
 었다. 때문에 산기슭 아태에 보이는 화전민 세호 동리를
 발견하자 그 즉시에 걸음을 멈추고 풀속에 들어 누버 죽어
 숨이 지고 밤이 오기만 기다리었다. 맑은 밤이 되자 박선생은
 산기슭 한집에 아래방 문정에가 주인을 찾군 "질가는 손님이
 허름한 자고 가는 것이 어디냐고" 허기를 받은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박선생은 벌써 그집에 두사람이 들어와 있는것을
 발견하자 박선생의 생각에는 인제는 꼭 일본놈들에게 끔찍
 못하고 못잡혔다곤 생각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주인은 저녁도 먹으라고 밥상을 들여왔다. 밥상을 받은 식
 사를 하는 도중 박선생은 그 먼저 들어온 두사람중 한
 사람은 어디선가 꼭 ^한번 생각이 났다. 저녁식사를 다
 한다음 박선생은 다시 생각하니, 그 사람이 모스크바
 주변 삼림속 나리라노브 명칭 경찰하고 근방에서 한
 번 인사없이 겨르르 지나가는것을 본 생각이 났다. 박
 선생은 속생각으로 "너도 나같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여기
 와 단시노나" 하는 생각하였다. 박선생은 두사람중 한
 사람이 ^한번으로 나간 다음 불었다 "당신의 모스크바에서
 오신 사람이 아닌가요" . 그러자 그사람은 침묵을지켰다

정하다가 박선생이 자기내막을 실수하니, 그사람은 실은
 하였다. (박선생이 우연하게 사선에서 만난 그 사람은
 박길남이라(조선 이름 박길남), 최후 조선의 해방된
 후 인민군 공병국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이다)
 박길남 선생은 나라다운 나라 명칭 학교를 나오곤 벌써
 일선전에 만주에 나와 공작하고 있었다. 박길남 선생은
 박창욱 선생처럼 실수있는 한인 별다른 부대 정찰병은
 만나 협공 동조를 해야되지, 그렇게 혼자만 다가는 실패를
 당할수 있겠나면서, 자기가 아주 일심직한 사람으로서
 하여 주겠나고 하였다. 그렇게 말하자 밖에 나갔던 사
 람이 들어 오자 인사를 식히었다. 그 사람은 유명한 한
 인 별다른 부대 영장인 최현장군 부대 정찰과장이었다.
 그의 성명은 김철 (최후 조선의 해방되지 조선인민군
 105단 부사관 유경수 사단장의 총입으로 죽어선 사
 람이다) 인사를 식히후 박길남 선생은 김철 선생을
 앉으라 하시고 박창욱선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뜰하
 리면서. 이 선생도 정찰 임무를 받고 북한에서 보신 분
 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 박길남 선생은 아주 친절
 하게 박창욱 선생에게 알뜰들이기를 우리가 이곳에
 서 설파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러면 이 지방 간
 벽들에게 길이 배리를 하고 사업하여야 실수가 없소
 한에서 박길남 선생은 김철선생에게 부탁하기를, '아마
 또 당분간만이라도 김철선생이 이 박선생을 잘 도와 주
 야 하겠소' 하였다. 이 말이 있은후 박창욱 선생은 김철
 선생과 아주 긴밀한 연락하에서 자주 경우 같이 함께
 로 동조하면서 2년간이란 긴 세월을 그 쓸쓸하고 몹시
 - 몹시한 나날을 보내면서 전후 임무를 수행하여 후대

용 무전기로 자기 북쪽에 하전하곤 하였다. 기관에
 언제 군대가 제할 많이 죽은 연립사에서 태일중반
 서 동정, 해룡, 조양현, 옥단강, 훈춘에까지 항상 김철
 선생의 안도에 의하여 돌아다니며 사업하시었다.
 한번은 1945년 5월 초순에 북한 국경 도시인 훈춘
 시에 다시 왔다가 일본군 정찰병에게 적발되며 일행
 3명은 추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일명이고 일
 행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두고 추
 격하지 못하면서 도중 3명의 거동과 동향이 남 샅되면서
 점점 갖까와 지려하면서, 이 세명은 좁은 길을 비바람에
 하여 간격을 늘렸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해가 넘어가게
 되자 일본군은 갖까와에 있는 파출소에 들어가 무장 군인
 한명을 더 보충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황창옥 선생은 일
 행은 방향을 비껴서 약 십리가량 간격을 늘려한 집적
 이 되었다. 그러나 저녁이 지나가고 밤이 시작되자 외
 흥 산골길은 아주 캄캄하게 되었으며, 아주 고풍하
 여 먼곳의 인기척도 들려오곤 있었다. 때문에 현곳에서
 여러 명의 추격자들이 배를 걸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확연한데다 그들은 캄캄한 숲길속에 대하여서는 맹목
 사적으로 하곤하였다. 황창옥 선생 일행은 큰길을 팔수로
 잡아가지는 하나 큰길에서는 걸지 못하곤 거기에서
 약 200-300미터 떨어진 옆 소목들의 들어선 새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장밤을 가고, 가다가 일
 행은 땀이 전하여 좀더 길은 습곡속에 들어가 좀
 쉬며 가려곤 걸심하였다. 이리하여 추격하는 놈들은
 그 어둠을 뚫을 도다시 맹목사격을 하였다.

이때에 박창욱 선생은 원팔에게 작지를 증상당
 하였다. 이때에 같이 가던 율령 동무들로 만일 평우를 위
 하여 항상 가던 당님은 약흥에서 고약을 꺼내어 바르고
 붓대로 싸매었으나 그 아픔은 기가 말하였다. 박 선생은
 2년 전에 전후입을 수술중역시 원팔을 북상당하여 약
 2개월간 치료했었는데 이제 더부러 그 팔 어깨 작지
 증상을 당하곤 회까지 남아 흘러온 보니 년제는 역시
 전하여 더 유익할 수 없었다. 박 선생은 "이것이 자기의
 말"이라 생각하면서 리철 선생하고 말씀하기를 언제
 는 자기를 여기에 남겨 놓은 강인우 동무와 같이 목전기
 를 가지고 정찰병 부근 장소까지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철 선생은 그것은 전혀 안 되는 소리라고 하
 면서 "죽으면 사령이 같이 죽어라 박 선생을 이곳에 떨
 쥐 두곤는 못간다" 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갈터이니 근심
 말라" 하였다. 박 선생은 어디에 용으로 눈물 흘리며 2
 년 전에 박길남 동지가 말하던 것을 아득고 않게 회상하
 였다. "우리의 사업에서 지방사람이나, 비록 지사 부대사
 람들과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실패를 당하곤 다" 하던
 그 말씀, 또 그가 친히 연봉 위하여 주고, 보게 하여준 리철씨
 한 친형보다도 나은 사람,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언제런지 잊을 수 없는 친구 관계에 기입된 친형,
 아니, 그보다도 더 값있는 존재란 것은. 참 그날 저녁에
 리철씨와 강인우씨는 박창욱 선생을 번갈아 입고 35
 걸로 정찰병 중앙 부근까지 왔는데, 그 이튿날 복하면
 일주일간 두 사람은 박 선생을 계속 입이 삐뚤어질 때까지
 호송하여, 삐뚤어질 수밖에 없게 하여 죽은 자기를

은 자기 딸과 지남복대애 둘이라 전후인무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1957년 여름에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일하고 있
 을시 립철 105 탄크사단장을 무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의 사무실 (항공사령부 사무실은 바로 105 탄크
 사단 옆에 놓여 있었다) 에 들어가 이야기 러 이야기
 하다가 군사위원장지 박창욱 선생을 잘아는가하고 물었다
 립철 장지는 내가 조선에서 온사 랫인을 알았기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람에야 자기들이 박창욱선생과같이 정한
 인무를 수행하던 이야기, 부상된 박창욱 선생을 사선으로 부어
 업어 꺼내며 살려보며, 소 만극경까지 호송하던 이야기를 하
 였다. 당시 박창욱선생은 서상림호에 걸려 북쪽상 직에서 철적
 되어 마동 세베는 공장지배인으로 감옥 되었을 때다. 립철
 장지는 박창욱 선생에 대하여 아주애석하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 그래요 박창욱 선생 만은 꼭 다시 노생 할것이요>>
 하였다.

박창욱 선생이 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제설시 그의
 사업적 활약로 깎지만 위선로 대단하였다. 박 선생은
 원리 한인 사전, 사대를 철하시고 후연간 당계통선전
 선전 계통에서 일하신 분으로, 선생이 음변과 해설우
 원이 풍부하여 헝강 관공들은 마유리로 지배하였다
 한번은 조선인민군 농경회측 선동-선전부장 문군 함
 소장이, 박창욱 선생의 강의를 듣고 말하기를 참 훌륭한
 문변객 해라 하며, "조선에서 조선인민에게 무당으로 선
 사한 5억 루블의 외, 50만은 일각루와 50만은 루블루를
 권대해하여 - 그 위발유 흥을 얻어어 놓으면 선의즉 시에서
 평양시까지 700 킬로 거리를 중회이상 연결할수 있다 -
 고 하였다. 북한인민회교는 두루나 다 박창욱 선생은 존경

하였는데 다만 한사람만 - 반소분지거류, 반강분지
 김창익이란 박창욱 선생을 미워하면서, 박창욱 선생
 이 사상검열에서 좌반일시 사회전당대회에서 호를 할시
 무반계기로 활동 선전지라고, 부류 언었다 김창익이든 친
 일파로써 노련은 아주 미워하였는데, 노련에서 나온사람들은
 아주 미워하였다. 많은 재료를 조각하여 사상검열시 많은
 간부들을 활적화단한죄로 김창익 자네도 반강분지분리
 반소분지로 불어 중앙당선전부강 직부에서 활적하여 지방
 에 나가 유형사리를 하다가 죽은바있다.

박창욱 선생은 1956년에 중앙당에서 나와 마중세
 렌느 공장으로 강적되어 유형사리를 하다가 전선에서
 부상당한 비열로 신유하다가 다시 노병리지북하고 1957
 년에 남구의 연영으로 세상을 화적하였다.

박창욱 선생은 노련군 경찰병으로 중국 만주 일보로 돌아
 간다며 일본광동군 출신필아래에서 2번 공상을 당하
 면서도 경찰병의 임무를 충실히하였기 때문에 노련정복로
 부히 "노련조국 전쟁 영예" 훈장 1급과 2급을 받았으며
 삼여개의 메달을 수여받았다. 그외에도 북한 경복군부
 터로 "국기훈장", "자위 독립훈장"과 많은 메달을 수여 받았
 다. 박창욱 선생이 정치적으로 처단당한후부터 기하가 즉
 조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런저 노련에 공부하러 다녀왔던
 아들딸 노련어는 노련에 노련바에서 살고 있다.

1999. 11. 12 일 최유진